

## 경부선 무궁화호 회송열차 토사유실로 인해 탈선(1보)

### - 국토부 철도안전상황실 운영, 철저하고 안전한 복구 작업 중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7.14일(금) 22:58분경 무궁화호 회송열차가 신탄진~매포역간 상행선의 맥포터널 운행 중 호우로 인해 선로내 유입된 토사와 접촉하여 탈선(기관차 1량+객차 5량)한 사고와 관련,
  - 철도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며,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복구와 사고조사를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번 사고로 기관사 1인이 23시 30분경 충북대 병원으로 긴급 호송(외관상 부상 無)되었으며, 이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  - 터널 내 탈선, 토사 유입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복구 장비 운용이 수월치 않아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경부선(일반)의 운행 계획 조정도 복구 상황 파악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하면서,
  - 열차운행 지연 및 환승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고객 안내와 홍보를 수행하고, 호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에 임해달라”고 지시했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김강문 (044-201-4602)